

2012
November 30

글로벌 보건산업동향

Weekly Healthcare Industry Trends



포커스

글로벌 제약산업의 혁신 동향과 과제

정책동향

- [미국] 미국 반이민법, 의료진료 공백 부작용 유발
- [일본] 일 문부성, 초·중학교 급식 열량 감축
- [캐나다] 캐나다 국민, 보편적 건강보험제도에 강한 자부심
- [EU] EU 의료비 지출 증가율, '75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

산업동향

- [글로벌] 거대 제약업체, 신약 연구에 영향력 행사 ... 결과 왜곡 가능성
- [일본] 일본 제약업체, 골프금지 등 탈접대 움직임 확산
- [중동] 사우디 시파 알자지라, 오만에서 의료센터 13곳 설립
- [중국] 중국, 고급 향수와 화장품 등 글로벌 럭셔리 시장 선도

신규보고서

- [미국] 미국 경제에 대한 바이오제약 산업의 기여
- [글로벌] 나노테크놀로지, 미래 화장품 시장 성장 견인

포커스

- 글로벌 제약산업의 혁신 동향과 과제 1

정책동향

- [미국] 미국 반이민법, 의료진료 공백 부작용 유발 5
- [일본] 일 문부성, 초·중학교 급식 열량 감축 5
- [일본] 일 후생성, 해외 건강보조 식품 사이트 구매 중단 촉구 6
- [미국] 미 캘리포니아 보건부, '발암·생식독성 의심물질' 목록 개정 6
- [캐나다] 캐나다 국민, 보편적 건강보험제도에 강한 자부심 7
- [EU] EU 의료비 지출 증가율, '75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 7
- [글로벌] WHO, 환차손 극복 위해 스위스 프랑화로 회비 납부 요청 8
- [일본] 일본 저출산 여파 소아과 구비 병원 18년 연속 감소 8

산업동향

- [글로벌] 미 화이자·영 AZ, 캐나다 퀘벡 주정부와 네오메드연구소 설립 9
- [영국] 영국, '01~'10년 난소암 사망률 20% 감소 9
- [글로벌] 거대 제약업체, 신약 연구에 영향력 행사 ... 결과 왜곡 가능성 10
- [EU] 스위스 알콘, 독일 센소모토릭 안과 사업부문 인수 10
- [EU] 스위스 로슈, 타미플루 임상시험 원자료 공개 논의 제안 11
- [일본] 일본 제약업체, 골프금지 등 탈접대 움직임 확산 11
- [중동] 사우디 시파 알자지라, 오만에서 의료센터 13곳 설립 12
- [미국] 미 남가주대, "대기오염이 자폐증 위험 높여" 12
- [미국] 미 캘리포니아대, "콩 식품, 폐경기 증상 완화 효과에 의문" 13
- [EU]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, ADHD 치료제 범죄 억제 효과 확인 13
- [프랑스] 프랑스 에스티로더, 핵심 브랜드 위주 조직 재편 단행 14
- [중국] 중국, 고급 향수와 화장품 등 글로벌 럭셔리 시장 선도 14

신규보고서

- [미국] 미국 경제에 대한 바이오제약 산업의 기여 15
- [일본] 나노테크놀로지, 미래 화장품 시장 성장 견인 16

포커스

글로벌 제약산업의 혁신 동향과 과제

글로벌 제약산업은 그동안의 경제 위기와 규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혁신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. 을 추진 본 자료는 세계제약연맹(IFPM)이 '12년 11월 발표한 '새로운 바이오제약 혁신 프론티어(The New Frontiers of Biopharmaceutical Innovation)'을 통해 제약산업의 혁신 동향 및 과제를 고찰하고 제약산업 혁신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

□ 글로벌 제약산업의 혁신 동향

- (개요) 글로벌 제약산업은 그동안의 경제 위기와 규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혁신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
 - (현황) '11년 제약업계의 신약·백신 R&D 투자는 그동안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.9% 증가한 1천350억불로 집계
 - * '11년 전산업 부문에 걸쳐 R&D 투자가 가장 많았던 10대 기업 중 4개가 제약기업이며, '02년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(FDA)에 등록된 신약 수는 340개
 - (문제점) 인간 게놈 연구를 기반으로 특이성 복합 약물 개발의 계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확실성, R&D 비용 대비 수익 저조 등의 문제에 직면
 - * 신약이 개발되어도 시장 진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, 약물의 복잡성 증가, 연구개발·임상·승인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R&D 비용에 비해 수익이 저조
- (혁신 동향) 제약산업에서는 신약·백신 개발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협력 R&D를 확대하는 한편, 하이테크에 기초한 신약 개발 수단을 도입
 - (협력 R&D 증가) 주로 사내에서 이루어지던 R&D를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R&D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
 - *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경쟁이전단계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유전자 지도를 협력적으로 작성하는 등 산·관·학 연구자들 간 지식 공유와 공동 문제 해결을 추진
 - * 이를 통해 연구 네트워크 구축, 세계 석학 유치, R&D 비용 분산, 중복연구 감소, 시장

출시 의약품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

- (연구 방식의 변화) 최근 하이테크의 발전으로 게놈 지도, 컴퓨터 모델, 분자 영상 등이 신약 개발 수단으로 도입되면서 과거의 시행착오형 연구에서 탈피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
- * 컴퓨터 및 영상 기술을 통해 분자 수준에서 신약물질의 표적 단백질 구조를 시각화함으로써 신약의 단백질 설계가 가능해지고, 특이적 바이오마커(biomarker)를 찾아냄으로써 질환의 원인을 보다 용이하게 규명하는 등의 성과가 달성
- * 이러한 혁신적 기술은 암, 당뇨, 심장병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, 우울증, 자폐증, 조울증, ADHD와 같은 신경정신질환에도 적용

□ 제약산업의 혁신 과제

- (만성비감염성질환) 만성비감염성질환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해당 질병에만 나타나는 특이적 바이오마커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
 - * 예를 들어, 자가면역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약물 효능을 수량화하는데 적합한 바이오마커가 없다는 점 때문에 치료법 연구가 정지 상태에 직면
- 만성비감염성질환 분야에서 R&D 대부분이 대규모 환자 집단에 대한 질병 진단과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단백질을 규명하는데 중점
- (신경정신질환) 신경정신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신경로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치료에 적합한 바이오마커도 밝혀지지 않아 대부분의 치료가 신체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
 - 신경정신 질환 의약품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△임상 승인 성공률이 매우 낮고 규제 승인까지도 35%의 시간이 더 소요되며, △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신경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 환자의 정보 수집이 용이하지 않고, △질병의 진행 속도가 느려 이미 질병이 상당히 심각해진 이후에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
 - 신경정신 질환은 스크리닝이나 바이오마커 수량화보다는 임상전문의 등의

환자 관찰에 의해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도 분야간 협력이 중요

- 신경정신 질환에 대한 분자 연구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치료 연구가 특정 분자의 경로 규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, 알츠하이머 예방백신 등의 백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

* 예를 들어, ADHD의 경우 뇌의 화학적 신호를 정상화함으로써 의사소통을 관장하는 신경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

- **(감염성질환)** 항생제 개발과 생활 여건 개선으로 많은 감염성질환이 극복 되었으나 항생제 내성균, HIV, 대유행 인플루엔자, SARS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상황

- **(백신)** 백신 연구개발은 변종 규명, 변종 특이 항원 생산, 항원 포몰레이션 (formulation)·전달(delivery), 백신 보존 등을 포함해야 하며, 국가보건의료 기관, 공공학술연구원, 민간 R&D 컨소시엄의 협력이 중요

- **(의약품)** 소분자 약물이나 바이오테라퓨틱스(biotherapeutics)는 감염된 환자*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나 병원체 분자 구조 지도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 으며, 효과적인 약물 개발을 위해서는 표적 단백질에 대한 이해가 필수

* 백신의 경우 감염이 된 환자에게는 사용하기가 어렵고, 항원의 급속한 돌연변이로 기존의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

- **(열대성소외질환)** 저소득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세계 1억명에 달하는 인구가 열대성소외질환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연구 병목현상과 자금 부족으로 효과적인 치료제와 예방약 개발이 지연

* 열대성소외질환 중 한센병, 림프사상충증, 레슈마니아증 등과 같은 질병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,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저소득 국가에서 많이 발생

- 열대성소외질환 백신 중 많은 수가 개발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, 질병 메커니즘 파악을 위해 상당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백신 개발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

□ 제약산업 혁신 육성을 위한 제언

- (혁신 환경 조성 정책) 안정적이며 투명한 법제도를 마련하고, 국내 과학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중요
 - 보건의료·산업 정책의 안정성은 공공·민간 부문 혁신 주체들의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 계획 및 투자 프로젝트 시행이 가능
 -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아지고 예측 가능해지게 되면 혁신 기업들에 투자 및 임상시험 동기가 부여되므로, 기업들이 보다 혁신을 갖고 기초 연구와 임상에 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시
 - 데이터베이스 개방, 연구 보조금, 연구개발 상금, 제품개발 파트너십 등 기존의 혁신 생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시행도 필요

- (자본시장 접근성 개선) 신약이나 백신의 연구·혁신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*되기 때문에 혁신 주체들이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충분히 접근해 장기 투자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
 - * 현재 신약 개발 한건 당 13억불의 자금과 14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
- (전문 인력 확충)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임상시험 단계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과학적 역량을 갖춘 인력의 투입이 요구
 - 선진국에서는 잘 갖추어진 교육시스템을 통해 세대에 걸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반면, 저소득 국가에서는 제약기업들이 연구자와 보건의료 종사자 훈련과 연구기관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

- (지재권 보호) 특허권, 상표권, 영업비밀 등의 지재권은 R&D 매몰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, 안정적인 지재권 보호를 통해 기업이 R&D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
 - 지재권은 해당 지재권 소유자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재권 정책에 R&D와 규제 일정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

정책동향

미국 반이민법, 의료진료 공백 부작용 유발

- 미국의 반이민법인 “11년 불법이민개혁집행법(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Enforcement Act of 2011)’이 시행되면서 의료면허 갱신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
 - 지난 해 조지아 등 일부 주에서 도입한 이 법은 의사, 간호사, 약사 등 의료진들이 의료면허를 갱신할 때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공증서를 발급받아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함께 주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
 - * 이 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갱신이 가능
 - 그 결과 조지아주에서는 법 도입 이후 1천759명의 의사가 면허 갱신을 신청했지만 만료 전 갱신된 비율은 13.5%(지난해 97.2%)에 불과, 진료를 제때 못하고 있으며, 주정부가 행정인력을 대폭 축소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
 - 이에 따라 의료진들은 대책을 촉구하지만 주정부와 의회는 이들에 예외를 허용하면 타업종에도 허용해야 하고 그러면 불법체류자 추방이란 입법 취지가 퇴색된다고 하며 이들의 반발을 일축 [American Medical News, 2012.11.26]

일 문부성, 초·중학교 급식 열량 감축

-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는 '13년 4월부터 시작되는 신학기부터 모든 초·중학교의 급식 열량을 현행보다 20~30 kcal 줄이기로 결정
 - 급식 열량 제한은 초·중학생들이 과도한 학업에 시달려 운동을 하지 않아 비만이 급증하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교육책
 - 이번 조치로 6~7세는 급식에서 530kcal(30kcal 감소) ▽8~9세 640kcal(20kcal) ▽10~11세 750kcal(20kcal) ▽12~14세는 820kcal(30kcal)를 섭취
 - 문부성은 지난 '86년 초·중학생을 4개 연령층으로 나눠 후생성의 ‘일본인의 식사섭취 기준’을 토대로 필요 열량을 설정한 뒤 부분적으로 개편한 적은 있으나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는 이번이 처음 [日本經濟新聞, 2012.11.20]

일 후생성, 해외 건강보조 식품 사이트 구매 중단 촉구

- 일본 후생노동성은 소비자들에게 중국 등 해외 건강보조 식품업체들이 일본어로 개설한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촉구
 - 후생성은 국립의약품식품연구소가 이들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과 다이어트 효과 등을 강조한 69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84%인 58개 제품에서 허가가 필요하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었다며 이같이 권고
 - *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에는 두통을 야기하거나 열을 내게 하는 성분, 다이어트 제품에는 혈압 상승과 발암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
 - 후생성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'01년부터 외국업체의 일본 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건강보조 식품의 성분을 조사하고 있으며,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 [산케이뉴스, 2012.11.29]

미 캘리포니아 보건부, ‘발암·생식독성 의심물질’ 목록 개정

- 미 캘리포니아 보건부가 ‘캘리포니아 음용수 및 독물물질 집행법(California Proposition 65)’에 근거해 ‘발암·생식독성 의심물질’ 목록을 개정, 벤조페논(benzophenone)과 디에탄올아민(diethanolamine)을 포함
 - 벤조페논은 스킨케어·헤어케어·색조화장품 등 다양한 화장품에 변색 방지제로, 디에탄올아민은 복합 에멀전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질
 - * 생식독성(reproductive toxicity)이란 생식기능 또는 태아의 발생·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독성을 지칭
 - 두 성분이 추가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발암 및 생식독성 의심물질 목록에는 8백개 이상의 화학물질들이 수록
 - 이번 조치로 벤조페논과 디에탄올아민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캘리포니아 보건부에 반드시 함유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, 고지의 무는 지난 '07년 이래 발매가 중단되었거나 제형이 개량된 제품에도 적용
 - 한편 미국 국내에서 발매되는 화장품 중 캘리포니아에서 발매되는 화장품은 전체의 20%를 상회 [CosmeticsDesign-USA, 2012.11.19]

캐나다 국민, 보편적 건강보험제도에 강한 자부심

- 몬트리올 소재 캐나다학연구협회(Association for Canadian Studies : ACS)가 여론 조사기관인 레저 마케팅(Leger Marketing)에 의뢰해 2천207명을 대상으로 국가 상징, 업적, 제도 등에 대한 자부심을 조사(복수응답 가능)
 - 그 결과 모든 국민에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**보편적 건강보험제도 (universal health care)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94%**로 가장 많았으며, 기본권을 보장한 권리자유헌장(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)이 90% 정도로 2위
 - 보편적 건강보험제도 뒤로는 캐나다 국기/여권 84%, 국가(national anthem) 78%, 군대가 76%를 기록했으며 견고한 경제 기반, 국가 명성도 상위권에 위치
 - 그러나 영어와 프랑스어의 이중언어제는 68%로 상대적으로 낮았고, 국민 스포츠인 아이스하키를 거론한 응답자는 48%에 그쳤으며, 군주제라는 응답은 39%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 [CTV, 2012.11.25]

EU 의료비 지출 증가율, '75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

-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와 EU집행위원회는 '10년 EU 회원국들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지난 '75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발표
 - 이는 재정위기 여파로 회원국 정부들이 긴축재정에 나섰기 때문으로, '00~'09년 EU 회원국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.6%를 기록했으나 '10년에는 마이너스 0.6%로 전락
 - 특히 **아일랜드**는 '00~'09년 연평균 6.5%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'10년에는 마이너스 7.9%로 추락했으며, **그리스** 역시 5.7%에서 마이너스 6.7%로 나타나 재정위기 여파를 반영
 - * 한편 '10년 국내총생산(GDP)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네덜란드가 12%로 가장 높은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11.6%로 그 뒤를 이었으며, EU 회원국 평균은 9.0%로 '09년의 9.2%에 비해 감소
 - OECD와 EU집행위는 의료비 지출 증가율 감소는 **역내 의료 서비스 전반에 부정적 영향**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명 [Pharma Times, 2012.11.23]

WHO, 환차손 극복 위해 스위스 프랑화로 회비 납부 요청

- 세계보건기구(WHO)가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을 극복하기 위해 회원국 정부에 **회비 절반을 스위스 프랑화로 납부할 것을 요청**
 - WHO는 회원국 정부가 회비 절반을 스위스 프랑화로 납부할 경우 WHO 수입과 지출 사이 12억불 적자가 7억불 적자로, 전액 프랑화로 납부하면 2억불 적자로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
 - * '12-'13년 WHO 회원국 회비 총액은 9억4천9백만불
 - 현재 WHO 회원국은 회비를 전액 미국 달러화로 납부하고 있는 반면, WHO는 직원 급여를 비롯한 경비의 75% 정도를 스위스 프랑화로 지출
 - 그러나 달러화 약세와 스위스 프랑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'00~'10년 WHO의 구매력이 34% 하락
 - WHO는 회비 절반이 스위스 프랑화로 납부되면 WHO가 달러화로 프랑화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환차손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회원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

[Bloomberg, 2012.11.28]

일본 저출산 여파 소아과 구비 병원 18년 연속 감소

- 일본 후생노동성은 ‘의료시설조사·병원보고’ 자료를 통해 '11년 10월 현재 일본에서 소아과를 구비한 병원 수가 18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발표
 - '11년 10월 현재 소아과 구비 병원 수는 전년 대비 63개 감소한 2천745개로, 이는 감소세가 시작된 '94년(약 4천개)보다 30% 정도 적은 수치
 - * 특히 동일본대지진을 겪은 이와테·미야기·후쿠시마 3개현에서 대폭 감소
 - '11년 10월 소아과 구비 진료소도 1만9천994개로 '08년에 비해 10% 감소
 - 소아과 구비 병원과 진료소 감소는 저출산 여파에 따른 현상으로 진단
 - 그러나 의사들의 노동조합인 ‘전국 의사유니온’은 소아과에서는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

[厚生労働省, 2012.11.20]

산업동향

미 화이자·영 AZ, 캐나다 퀘벡 주정부와 네오메드연구소 설립

- 미국의 화이자(Pfizer)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(AZ) 및 캐나다 퀘벡 주정부가 총 1억불을 투입, 생명과학에 특화된 네오메드연구소(Neomed Institute)를 퀘벡주 몬트리올에 공동 설립하기로 합의
 - 신설 연구소는 의약품 개발 초기단계 연구에서부터 화이자와 AZ 및 퀘벡 주정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
 - 화이자와 AZ 및 퀘벡 주정부는 1백명의 연구소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며, 연구 실적을 통해 국제 투자자들로부터도 자금을 유치한다는 계획
 - 네오메드연구소 설립은 R&D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보다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글로벌 제약업계의 트렌드에 부합
 - 한편 AZ는 최근 몬트리올에 위치한 신경 R&D 센터를 폐쇄한 바 있어 퀘벡 주정부는 네오메드연구소 설립으로 몬트리올이 다시 바이오텍 허브로 부상할 수 있기를 기대 [FierceBiotech, 2012.11.26]

영국, '01~'10년 난소암 사망률 20% 감소

- 영국 국립암정보네트워크(National Cancer Intelligence Network : NCIN)는 지난 '01년 여성 10만명 당 11.2명이었던 난소암 사망자 수가 '10년에는 8.8명으로 줄어 10년 사이 난소암 사망률이 20% 감소했다고 발표
 - 또 동기간 난소암 환자의 1년 이상 생존율은 57%에서 73%로, 5년 생존율은 33%에서 44%로 높아졌으며, 5년 생존율의 경우 15~39세 사이 난소암 진단을 받을 경우 84%, 85세에 진단을 받으면 14%로 나타났다고 소개
 -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스트 켄트 대학병원 여성암 전문의 앤디 노딘(Andy Nordin) 박사는 진단과 치료가 어렵기로 악명 높은 난소암이 극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
 - 영국 여성에게 난소암은 5번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암으로, 매년 7천명 정도가 난소암 진단을 받는 것으로 추정 [Medical News Today, 2012.11.23]

거대 제약업체, 신약 연구에 영향력 행사 ... 결과 왜곡 가능성

- 글로벌 거대 제약업체들이 의학계의 신약 개발 연구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, 연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
 -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지난 '00년 이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(NEJM)에 게재된 73건의 신약 개발 보고서를 조사, 이 같은 우려를 표명
 - * 73건 중 60건에서 연구진이 제약회사의 재정지원을 받았고, 50건에서는 제약업체 임직원이 연구에 참여했으며, 37건에서는 주요 연구진이 제약업체로부터 자문료나 강연료 등 명목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
 - 워싱턴포스트는 연구 결과가 왜곡된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GSK의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(Avandia)에 관한 보고서를 지적
 - 과거에는 주로 정부가 연구를 지원했지만 최근에는 제약회사가 담당하는 추세로, '11년의 경우 미국 보건부는 연구 지원에 310억불을 투입한 반면 제약업체들은 이보다 80억불 많은 390억불을 사용
 - 그러나 제약업체는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의학계 내부에서는 제약회사들의 재정지원을 받는 신약 연구의 결과 왜곡 가능성을 근절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 [Washington Post, 2012.11.25]

스위스 알콘, 독일 센소모토릭 안과 사업부문 인수

- 스위스 노바티스의 자회사 알콘(Alcon)이 독일 의료기술기업인 센소모토릭 인수트루먼트(SensoMotoric Instruments)의 안과 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결정
 - 알콘과 센소모토릭은 지난 10여년 간 파트너 관계를 유지
 - 알콘은 센소모토릭을 인수함으로써 맞춤형 및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최적의 백내장 수술 결과를 지원하는 안구 추적 기기와 안구 내 렌즈위치 조정 기기 등 센소모토릭의 첨단 기기와 기술을 확보
 -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며, 알콘의 '11년 매출은 1백억불 정도로 추정
 - 한편 알콘은 최근 '렌즈엑스 소프트피트 페이스션트 인터페이스(LenSx SoftFit Patient Interface)'를 개발, 올해 안으로 주요 시장에서 판매한다는 계획 [Zenopa, 2012.11.21]

스위스 로슈, 타미플루 임상시험 원자료 공개 논의 제안

- 스위스 로슈(Roche)가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타미플루 임상시험 원자료 공개 방안을 논의하자고 영국 비영리 의학연구 평가단체인 코크레인 콜라보레이션(Cochrane Collaboration)에 제안
 - 이 제안은 타미플루 효과와 관련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, 코크레인은 타미플루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임상시험 자료 공개를 요구
 - * 영국의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(British Medical Journal)도 로슈가 타미플루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 제품을 보이콧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
 - 로슈는 코크레인이 비밀 유지 계약 체결을 거부했기 때문에 원자료를 공개할 수 없었다며 비밀 유지 계약이 체결되면 전체가 아닌 개별적인 자료 공개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
 - 한편 영국 정부는 제약업체들이 임상시험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법과 규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 [Pharma Times, 2012.11.23]

일본 제약업계, 골프금지 등 탈접대 움직임 확산

- 일본 제약업계 사이 의사와의 골프가 금지하는 등 탈접대 움직임이 확산
 - 220여 제약업체로 구성된 ‘의료용 약품 제조판매업 공정거래협의회’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영업사원의 골프 접대를 금지한 데 이어, 의사와의 회식비 상한선을 1인당 5천엔으로 설정하고 식사 후 2차도 금지
 - 지금까지 일본 제약업계에서는 영업사원이 평일 야간에는 고급 음식점에서, 주말에는 골프장에서 의사들을 접대하는 관행이 일반화
 - 그러나 제약업계는 약제비가 공적건강보험 대상인 상황에서 접대비는 약값에 전가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세금을 늘린다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
 - 제약업계에서는 영업사원과 의사의 직접 접촉이 어려워지자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하는 추세로, 의료 정보전문 벤처기업 엠쓰리(M3)의 아이패드 연동 정보제공 도구 ‘MR군’ 등의 인기가 고조 [朝日新聞, 2012.11.20]

사우디 시파 알자지라, 오만에서 의료센터 13곳 설립

-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 의료그룹인 시파 알자지라(Shifa Al Jazeera)가 총 2억5천9백만불을 투입, 오만에서 의료센터 13곳을 건설할 계획
 - 시파 알자지라는 우선 1단계로 50 병상 규모의 의료센터를 루위(Ruwi)와 알 콰이어(Al Qwair)에 각각 2곳, 바르카(Barka)에 1곳 건설해 '14년 1분기부터 가동에 들어갈 방침
 - 시파 알자지라는 오만 의료센터 개설이 중동에서 **고품질에 기반한 포괄적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사의 고객 지향 전략의 일환**이라고 소개한 뒤 1단계 사업은 오만 건설업체 알리스코(Alisco)가 담당한다고 설명
 - 시파 알자지라는 2단계로 알 코우드(Al Khoud), 소하르(Sohar), 살라흐(Salalah), 둔쿰(Duqum), 수와익(Suwaiq), 카보우라(Khaboura), 부라이미(Buraimi), 이브리(Ibri), 팔라지 알 카바일(Falaj Al Kabail)에 의료센터를 건설할 계획 [Arab News, 2012.11.22]

미 남가주대, “대기오염이 자폐증 위험 높여”

- 미국 남가주대(USC) 연구팀은 어머니 뱃속에서, 또한 출생 초기에 **대기오염에 노출되는 영아는 자폐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**는 연구 결과를 일반정신의학기록(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)지를 통해 발표
 - 연구팀은 어머니 거주지 주소와 환경보호청(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: EPA)의 지역별 대기품질에 관한 데이터를 토대로 자폐아 279명 및 정상아 245명을 비교 분석
 - 그 결과 생후 1년 이전에 대기오염에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폐증에 걸릴 가능성이 평균 3.1배, 어머니가 임신 중 대기오염에 노출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
 - 연구팀은 대기오염에 들어있는 이산화질소 등 **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자폐증 영아가 갖고 있던 유전적 소인의 발현이 촉발**된다고 설명

[Health Day, 2012.11.26]

미 캘리포니아대, “콩 식품, 폐경기 증상 완화 효과에 의문”

-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두부 등 콩 식품이 대다수 여성에서 전신 열감과 식은땀 등 폐경기 증상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메나포즈(Menopause)지를 통해 발표
 - 연구팀은 42~45세 여성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식이 습관과 섬유질 섭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, 식이성 피토에스트로젠(phytoestrogens)이나 섬유질 섭취와 여성의 폐경기 증상 사이에는 중요한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
 - *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(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: NIH)의 자금을 지원
 - 이는 다른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결론으로, 연구팀은 콩 식품으로 폐경기 증상 완화를 경험한다는 여성의 경우에는 콩 식품이 아닌 유전자와 신진대사 요인 때문일 것으로 추정 [US News and World Report, 2012.11.22]

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, ADHD 치료제 범죄 억제 효과 확인

-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(Karolinska Institute) 연구팀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(ADHD) 치료제로 범죄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(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)지를 통해 발표
 - 연구팀은 15세 이상 ADHD 남성환자 1만6천명 여성환자 1만명의 범죄 자료를 분석한 결과, 치료제를 복용하는 기간에는 복용을 끝낸 이후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남성은 평균 32%, 여성은 41% 낮은 것으로 확인
 - 연구팀은 또 4년 동안 최소 1회 이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남성환자가 37%(일반인 9%), 여성환자는 15%(일반인 2%)로 나타나는 등 ADHD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범죄 가능성이 4~7배 높다는 사실도 확인
 -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ADHD 치료제가 단순한 치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, ADHD 환자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치료제 투여를 계속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설명

[Fox News, 2012.11.23]

프랑스 에스티로더, 핵심 브랜드 위주 조직 재편 단행

- 프랑스 에스티로더(Estée Lauder)는 '13년 1월부터 핵심 브랜드 위주로 조직을 재편하는 전략적 조직진화(organizational evolution)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
 - 이 프로그램은 에스티로더가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, 내외부 조직을 핵심 브랜드 위주로 재편하면서 지역별 마케팅을 더욱 활성화하는 내용
 - 조직진화 프로그램에는 현재 2인인 그룹 회장을 4명으로 확충하고, 일부 글로벌 브랜드를 재편해 개별 경영자들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면서 혁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전략이 포함
 - 이에 따라 티아 브린(Thia Breen) 신임 회장 내정자는 미국 및 캐나다 자회사들을 총괄하고, 린 그린(Lynne Greene) 내정자의 경우 크리닉(Clinique)·오리진스(Origins)·오존(Ojon)·아베다(Aveda)·달팡(Darphin) 등 브랜드와 함께 기업의 글로벌 인수합병(M&A)을 총괄 [RTTNews, 2012.11.15]

중국, 고급 향수와 화장품 등 글로벌 럭셔리 시장 선도

-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미국의 베인 앤 컴퍼니(Bain & Company)는 시간이 갈수록 중국 소비자들이 고급 향수와 화장품 등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강력한 파워집단으로 부상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
 - 중국 소비자들은 지난 '10년 럭셔리 제품 구매에 65억불을 지불해 3년 연속 세계 최고의 구매 증가율을 기록했으며, 현재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25%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
 - 중국은 오는 '15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럭셔리 제품 소비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, '20년에는 럭셔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구수가 현재 8천만명에서 1억8천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한편 베인 앤 컴퍼니는 '12년 글로벌 럭셔리 시장이 전년 대비 10~12% 증가한 2천120억 내지 2천150억 유로 규모를 형성할 것이라며 지난 5월 6~7% 증가해 2천억 유로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상향 조정

[China Fashion Trends, 2012.11.26]

신규보고서

미국 경제에 대한 바이오제약 산업의 기여

- 미국의약연구제조협회(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: PhRMA)는 '12년 11월 ‘주· 지역 경제에 대한 바이오제약 산업의 기여 (Biopharmaceutical Industry’s Contributions to Local, State Economies)’ 데이터를 공개
 - PhRMA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국 바이오제약 산업이 각종 의약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는 물론, 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에도 긍정적 영향을 발휘하면서 미국 경기 회복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
- PhRMA가 미국 17개 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오제약 산업은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고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'11년 총 530억 불을 지출하면서 이들 주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
 - 바이오제약 산업 지출이 많은 주는 펜실베이니아(93억6천5백만불), 뉴저지(81억9백만불), 뉴욕(73억5백만불) 순이며, 적은 주인 아이오와(1억9천4백만불), 콜로라도(3억7천8백만불), 델라웨어(3억910만불) 등도 2억불에 근접하거나 상회
 - 이러한 통계는 바이오제약 산업이 각종 의약품과 관련한 기술· R&D· 제조· 유통 등 직접 분야와 인근 산업 등 간접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, PhRMA는 바이오제약 산업과 미국 경기 회복 사이 긴밀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
- PhRMA는 바이오제약 산업이 미국 경제에 연간 총 9천170억불 상당에 달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
 - 미국 바이오제약 산업은 65만명을 직접 고용할 뿐 아니라 종사자 1인당 5인에 육박하는 간접 고용효과를 유발, 제조업· 건설업· 아동보호· 소매· 회계 등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 총 4백만명 정도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
 - 또 제약업체들은 임상시험에서 법무지원, 전산정보통신 기술, 제조설비, 위탁생산, 수송 및 물류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미국 경기 회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

나노테크놀로지, 미래 화장품 시장 성장 견인

-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RNCOS는 “14년까지의 나노테크놀로지 시장 전망 (Nanotechnology Market Forecast to 2014)’ 보고서를 '12년 10월 발표
 - 동 보고서는 나노테크놀로지가 미래에도 **화장품 산업을 비롯해 전자업계와 방위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**
 - * 나노테크놀로지는 10억분의 1m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극미세 가공 과학기술
- 나노테크놀로지는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**각종 화장품의 효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, 특히 미백과 노화 방지 물질을 효과적으로 피부 세포에 전달할 수 있는 특성을 보유**
 - 나노 구조체는 화학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피부 세포층을 선택적으로 통과할 수 있어 화장품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점이 특징으로 거론
 - 이에 따라 현재 나노테크놀로지를 이용한 화장품은 **주름살 제거· 자외선 차단· 피부 미백용** 등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으며, **섬유· 세라믹· 합성수지**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
- 화장품은 물론, 전자업계와 방위산업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나노테크놀로지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'11~'14년 글로벌 나노테크놀로지 시장 규모는 연평균 19%의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 - 나노테크놀로지는 올해 화장품 분야에서만 총 1억5천580만불의 시장규모를 형성하는 가운데 이중 **자외선 차단제 부문이 95%를 점유할 전망**
 - 전자업계와 제품업체들이 나노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과 공정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나노테크놀로지 시장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
 - * 치과 분야의 경우 진료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임플란트 기술을 개선하는 등 나노테크놀로지를 접목한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
 - 한편 나노테크놀로지를 응용한 식품 시장에서는 지난 '09년 기준 40여개국 1천2백여 회사들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